

까만 나주배...더 까만 농심

나주 금천면 배농사 현장 가보니

장기 폭염에 배 물러지고 썩어
피땀 흘려 지은 농사 다 망쳐
수확량 독...매출 80% 하락도
재해보험 적용 안돼 한숨만
기후변화 피해 날로 커지는데
열과 피해 자연재해 인정 시급

“다 물러지고 썩어버렸는데 보상도 못받으니 차라리 열대과일 농사를 지어야 할 판이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추석을 지나서도 이어지는 유례없는 기상이변과 잦은 비 때문에 나주 특산물인 배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본격 수확기를 맞아 나주배 농가들이 배를 갹꿨던 종이봉지를 열었더니 배들이 모두 까맣게 타버렸기 때문이다. 긴 폭염으로 열과(梨果)와 일소(日燒)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일소’는 배 껍질이 검게 그을리고 과육이 무르는 현상으로 여름철 기온이 높고 강한 직사광선을 쬐일 때 발생한다. 일소 피해를 입으면 열과로 이어지거나 과실이 썩고 과사한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16일 찾은 나주시 금천면의 한 배 과수원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일소 피해를 입은 배가 떨어져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과수원 곳곳에는 껍질이 까맣게 타거나 물러 벌레 먹은 배가 쌓여 있었다.



16일 오전 나주시 금천면에서 진명호씨가 수확을 마친 배 과수원에서 일소 피해로 썩어가는 배를 정리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7년째 배농사를 짓고 있는 진명호(62)씨는 “평소 수확량의 5분의 1 정도밖에 건지지 못했다. 피땀 흘려 농사지었는데 허탈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진씨는 과수원에 일소 피해가 덮치면서 올해 매출이 700여만원 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소 매출이 4000여만원인 것에 비해 8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진씨는 “인건비 등 비용이 2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손해만 떠안게 된 셈”이라며 “어이가 없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진씨의 밭 인근에서 배 농사를 짓던 다른 농민은 배농사를 포기하고 과수원을 내놨다. 흑성병과 일소 피해 등으로 배 농사를 아예 망치자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진씨는 “40년 가까이 배 농사를 짓던 할머니가 영영 울면서 농사를 포기했다”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주시는 나주 배농사 재배 면적(1748ha)의 20~40% 가량이 일소·열과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나주배원에농협에 따르면 계약 농가 1272곳 중 1103곳이 일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다만 배의 경우 봉지를 씌워 기르기 때문에 일소 피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주시의 입장이다. 특정 구역에서 샘플 과실을 수확해 피해를 집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소 피해에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일소는 자연재해로 인정돼 농

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보상을 위해서는 상품성 있는 과실을 골라낸 후 나무에 매달린 열매 중 6%초과 피해 발생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샘플링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 실제 피해를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 농가는 많지 않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이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과실은 이미 낙과해 썩어가고 있지만 이런 낙과 과실은 피해샘플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주시 노안면에서 20년째 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보(56)씨는 “올해 수확량이 50%에 그칠 듯한데 재해보험 실사에서는 5% 미만으로 집계됐다”며 “이미 썩어 낙과한 과실은 두고 나무에 달린 과실 중 몇 %가 일소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식이니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리 없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나주시 등에 ‘더위가 심상치 않다. 올해 일소 피해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나주시, 전남도,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으니 농민들만 죽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민들은 “이번 대규모 일소 피해가 이상기후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지만,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폭염·폭우 등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주는 등 재해보험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며 “‘기공용 배 시장격리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해 수매가격을 2000원에서 4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출신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에

민주,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도

김성주(57·사법연수원 26기·사진) 광주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석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복을 입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

주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친 대표적인 향판(鄉判)이다. 지역법조계에서 김 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는 법관으로 꼽힌다.

민주당도 현직 판사군에서 지역 법관의 명맥을 잇고 있는 김 판사를 후보군으로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출신인 정 원장은 1998년 임관해 서울 서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쳤다.

민주당은 민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지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관 국회 인준은 재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매입형 유치원 비리’ 유치원장 항소심 징역 2년

돈 준 다른 유치원장은 법정구속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매입형 유치원) 해주겠다고 금품을 받고, 광주시의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6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의 항소심에서 유치원장인 피고인 2명에 대한 1심을 파기해 형을 다시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 결정했다.

유치원 원장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A씨는 지난 2020~2021년 유치원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며 사립유치원 원장인 B씨 등으로부터 매입 유치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아 최영환 당시 광주시의원에 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힘써달라며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공개 문건을 전 언론인 C씨로부터 넘겨받고 200만원을 사재비로 준 혐의도 있다. C씨는 광주시교육청 전 공무원 D씨로부터 공무상

기밀을 받아 A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징역 2년 6월형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공립전환 유치원 선정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유치원장 B씨에 대해서는 1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가중처벌하고 법정 구속했다.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전 언론인(1심 징역 6월),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시 교육청 전공무원(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하며 A씨에게 금품을 준 또다른 유치원 관계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항소는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의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파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범죄 예방효과 없다면 음주운전 차량 몰수 신중해야”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자동차 등의 몰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순천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1t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80대 여성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했다. 지난 3월에는 순천 자신의 집 앞길에서 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

했지만, 검찰의 오토바이 몰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오토바이 및 열쇠를 몰수하지 않은 것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오토바이는 음주운전 범행에 단 한 차례 쓰였고, 몰수하더라도 A씨가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몰수가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무면허 범죄의 자동차 몰수는 비례 원칙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